

# 죽은 이와 함께 했던 특별한 동행자의 이야기 속으로

### 국립광주박물관, 내년 3월10일까지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 전 국보 '토우장식 항아리' 등 246점 전시...초등생 토우 만들기 체험도

"이 전시는 과거를 여행하는 내용이지만 과거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죽음이란 누구나 겪는 일이며 지금 우리 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 너머에는 떠난 이가 살아온 삶, 죽을 이후에도 편안한 삶을 살기 바라는 보내는 이들의 기도 같은 이야기가 가득 있습니다."

전시실 입구에 들어서면 마주하는 문구다. 죽음을 모티브로 이전의 삶과 현재 그리고 죽을 이후의 내세에 대한 기원을 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홍선)이 토기와 토우를 주제로 특별전을 연다. 12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는 특별전 주제는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 전.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열었던 특별전의 두 번째 전시로 기획했으며 신라·가야 토기에 나타난 고대 장승의례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경주 계림로에서 출토된 '토

우장식 항아리' (국보), 이견희 기증 '말 모양 빨잔' 등 246점이 관객들을 맞는다. 기자 간담회에서 공개된 다양한 토기와 토우장식 토기들은 목적과 쓰임새 등이 다채로웠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 저 너머 내세에서는 편안하고 안식의 삶을 영위하기를 바란다. 인간이 끊임없이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상징물을 만들고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것은 그런 바람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번 특별전에서 선보이는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는 죽은 이의 무덤에 놓여진 의례용품들은 죽음이 삶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상형토기는 말 그대로 '형상을 본떠 흙으로 만든 그릇'이며 토우는 흙으로 만든 인형을 뜻한다. 주위에서 쉽게 마련할 수 있는 흙을 소재로 만들었다는 점, 인간은 누구나 흙으로 돌아간다는 점 등은 전시에 대한 친근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국립광주박물관이 특별전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을 12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연다.

최홍선 관장은 "전시된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는 당대 사람들의 또 다른 형태의 명징한 기록이다"며 "죽은 이의 영혼을 잘 보내는 기원뿐만 아니라 재생, 탄생, 부활 등의 다면적인 의미가 깃들여 있다"고 밝혔다.

전시는 2개 주제로 짜여져 있다. 1부 '영원한 삶을 위한 선물, 상형토기'는 사람, 동물, 사물을 본떠 만든 토기가 주를 이룬다. 술과 같은 액체를 담거나 따를 수 있어 제의에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새를 비롯해 상서로운 동물, 뿔, 말, 수레, 등잔 등을 축소해서 만든 상형토기는 종류도 다양하다. 장승의례와 관련 사후의 세계를 예비한 토기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상형토기 중에서 새모양 토기가 압도적으로 많다. 새는 고대로부터 죽은 이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졌다. 승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그런 이유다. 뿔 모양의 토기도 동일한



국보 '토우장식 항아리'

노형신 학에서는 "영혼을 하늘로 안내하고 떠나가는 길에 동행이 될 수 있도록, 편안한 침을 위해 상형토기를 무덤에 넣었다"며 "집 모양 토기나 배 모양 토기는 당대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2부에서는 '헤어짐의 이야기, 토우장식 토기'는 흙인형 토우를 토기 표면에 부착한 토기를 만난다. 다양한 동물들이 토기 위에 부착된 모습은 이색적

의미를 지닌다. 동물의 뿔은 하늘과 연결되는 권위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옛 사람들은 조형 작품 주제로 많이 선택했다.

개구리 뒷다리를 무는 뱀이 일정하게 그려져 있으며 중간에 현악기를 켜는 여자, 남녀의 성적인 장면, 새와 물고기 등이 등장한다. 학계에서는 신라에 불교가 도입되기 전이라는 점에 비춰 이전부터 전승된 토속종교 의례라고 추정한다.

한편 특별전 연계 프로그램도 있다. '토우야 반가워'는 초등학생 가족 대상으로 나만의 토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코너가 마련돼 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동물, 사물 등 다양한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토기들.

## 가곡 선율 '처음으로 만났던 그 노래'

### 광주예술가곡연구회 13일 공연

다섯 명 소프라노가 성악을 처음 시작했던 순간을 되돌아보며, 그 시절 불렀던 노래를 다시 선보인다.

광주예술가곡연구회(대표 정수희)가 '처음으로 만났던 그 노래'를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에서 펼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수희, 이승희, 정별민, 박선경 그리고 장희정 다섯 소프라노가 출연해 각각 예술가곡 세 편씩을 들려줄 예정이다.

공연을 기획한 정수희 대표는 "성악가에게 '첫 노래'는 그 자체로 음악적 여정의 출발점이자 음악적 소신을 담은 중요한 '기념비'다"며 "이번 무대에 오르는 소프라노들은 각기 다른 여정을 걸어왔지만 조화로운 하모니를 통해 하나로 어우러질 것이다"고 했다.

공연은 전남대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노



2021년 진행했던 광주예술가곡연구회 '창단 연주회' 공연 장면. (광주예술가곡연구회 제공)

비라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장희정은 독일 작곡가 글록의 '사랑스러운 해변'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로시니 '꾸지람', 슈만 곡 '현정' 등이 올려 퍼진다. 장씨는 현재 동신대 외래교수로 재직 중.

박선경은 슈만 '봄이다', 쇼나이 '나 꿈을 꾸었네' 등을 부른다. 전남대 음악학과 및 이탈리아 로마아카데미 성악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박씨는 현재 전남대, 호신대, 광신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한예종 영재원 광주지부에서 강의하는 정별민의

'오 나의 사랑하는 남' 등도 레퍼토리에 있다. 광주교대·호신대 외래교수인 이승희의 토스티 곡 '꿈이외의 다수 곡도 올려 퍼진다.

전남대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노스텍사스대에서 연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수희도 무대에 오른다. 슈트라우스의 '현정', 글록 '오 감미로운 나의 사랑' 등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피아노 연주에 광주오페라단 나원진 음악코치, 전석 초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전남문화재단, 15~16일 전국 청년활동가 대회

딱 2년만 살고 떠나려 했지만 완도에서 6년째 청년 이장까지 맡고 있는 김유승 씨. 목포에서 춤 추고 노래하며 청년예술단체와 함께 조례를 개정하는 데 힘 쓴 '은총' 씨.

두 사람의 공통점은 소멸위기 지역에 동지를 틀고 문화기획 프로젝트를 실현시킨다는 데 있다. 이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논의하고, 인구 및 지역소

멸 등에 대해 머리를 맞닿 활동가 청년들을 모집한다.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이 '사가지(사회적 가치 지향) 프로젝트' 전국 청년활동가 대회를 오는 15~16일 전남 장흥군 옛 장흥교도소 일원에서 펼친다. 문화기획 등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 인구소멸지역 행정가 등, 일반 생활인 등 세

테고리에 해당되면 누구나 참가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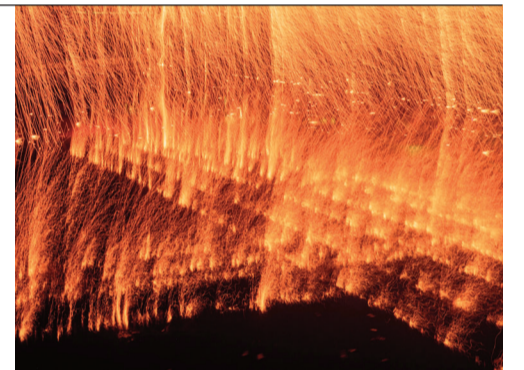
행사는 15일 오후 2시 업사이클링 뮤직 공연 등 '오픈 세레머니'로 시작한다. 이어 문화예술 향기로 채워진 장흥교도소 투어 및 프로젝트 전시 관람, 라운드 테이블, 유기농 펌프포크 '말'과 함께 하는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된다.

이튿날은 장흥 우드랜드 편백숲을 다함께 산책한 뒤 모닝토크, 라운드테이블2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QR코드로 사전 수요조사 신청.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박종호 작 '석장승'



염경선 작 'MOMENT'

## '사람의 문양' 빛의 언어로 포착

### 광주대 대학원 사진학과 전시회...13일까지 호심관

임신과 저출산, 여성의 역할 변화, 노부모 부양 갈등, 고향의 시간 등...

모든 생명체와 사물에는 나름의 문양이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도 저마다 인상적인 모양이 있기 마련이다. 사진은 그 특유의 모습, 문양을 순간적으로 포착하는 예술이다.

광주대 대학원 사진학과가 극기관 1층 호심미술관에서 '사람의 문양(紋樣) 2024'를 주제로 동문 전시회를 연다.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김규표 원우를 비롯해 모두 12명 선수가 참여했다. 각기 형상화한 이미지 언어는 언급한 임신과 저출산 등 사회의 제 문제 외에도 풍경 등을 다룬 작품들이다. 예술사진을 비롯해 다큐멘터리, 현대 사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작품들은 사물의 문양이나 내면의 심미안을 아우르는 작품들로 보는 맛을 선사한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종호의 '석장승'은 해학적이며 희극적인 장승의 모습을 포착했다. 다채로운 석장승의 모습은 우리 고유의 석장승이 지닌 은근한 정과 소탈한 표정을 담고 있다.

염경선의 'MOMENT'는 순간적으로 포착한 도심의 밤 풍경 또는 물줄기를 뿜어 올리는 분수대의 풍경을 초점화한 듯하다. 사진이라는 순간과 빛의 예술이 보여주는 미학을 절묘하게 표현했다. 환상적이면서도 신비한 풍경은 따스한 이미지와 함께 다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김덕일 다큐멘터리 "이번 '사람의 문양(紋樣) 2024'전은 동문 작가 12명이 바라본 다채로운 세상의 모습을 개성적인 감각으로 보여주는 자리"라며 "사진 이면에 드리워진 작품이 발하는 의미와 본질을 저마다의 해석을 통해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 국제보청기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